

結婚 滿足度 尺度에 관한 研究

-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教授 : 金 得 星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Deuk Sung Kim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자료수집
II. 이론적 고찰	2. 조사도구
1. 개념의 명료화	3. 자료분석
2. 결혼 만족도 척도(KMSS) 의 특성	IV. 결과 및 해석
III. 연구방법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 KMSS was designed as a short and direct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The scale consists of three items where respondents are directly asked how satisfied they are with their marriage, with their partner as a spouse, and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 1) Through item analysis, three items were significant discrimination for husbands and wives.
- 2) The KMSS consisted of 1 factor for husbands and wives.
- 3) Cronbach alpha estimates of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93 for husband and of .89 for wives.

4) For wives, the item means between satisfaction with their marriag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husban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even though the items were highly correlated. For husbands, three item means weren't significantly different.

5)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to the scale for husbands and wives departed significantly from normality in terms of skewness and kurtosis.

6) The scale was correlated, in expected directions, with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MCLI) and Marital Instability Index(MII), for husbands and wives.

In conclusion, the scale offers promise for use in clinical evaluation and survey research where a brief but reliable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is required.

I. 문제의 제기

結婚 適應·滿足과 質 測定에 대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비판이 계속 되고 있다(cf. Donohue and Ryder 1982; Lively 1969; Sabatelli 1984; Trost 1985). 따라서 새롭고 더 나은 측정에 대한 요구때문에, 연구자들은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문제에 회생됨이 없이 結婚關係의 知覺의 몇가지 측면을 추론하는 척도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된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 단축형(LWMAT; Locke and Wallace 1959)을 개선하기 위하여,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 Snyder(1979)의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 그리고 Schumm과 동료들¹⁾(1983a, b)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의 結婚 適應/滿足/質을 측정하는 自己報告 道具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Norton의 QMI와 Schumm과 동료들의 KMSS는 結婚 滿足(또는 質)을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인 評價로 제한하여, 전통적인 측정들(예; LWMAT, DAS)과는 달리 결혼에 대한 評價와 評述을 혼동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전의 측정들보다 길이가 상당히 짧은²⁾ 利點을 가지고 있다(Fincham and Bradbury 198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 KMSS를 택하여 척도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부부들에게 사용하여 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개념의 명료화

먼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結婚 適應·滿足·質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1) 結婚 適應

結婚 適應 개념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다(Locke 1951; Spanier 1976; Spanier and Cole 1976). 잘 적응하는 관계는 배우자가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고, 중요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거의 불일치가 없으며,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 대화하며, 그리고 서로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다(Locke and Wallace 1959; Spanier 1976).

이렇게 적응을 개념화하는 것은 적응 측정의 分析單位가 한쌍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Thompson and Walker 1982).

2) 結婚 滿足

結婚 滿足은 전형적으로 배우자와 관계에 대한 개인의 態度로써 사용되었으며(Roach, Frazier, and Bowden 1981), 分析單位는 개인(즉 개인의 태도나 감정)이고, 分析目的은 관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상(객관적인 인상보다는)이다.

3) 結婚의 質

結婚의 質의 개념화와 조작화에 두가지 특징적인 지향이 있다.

하나는 다차원적 현상을 포함하는 指數로 보는 관점으로, 이것은 적응과 만족을 더 넓고 포괄적인

주1) W.R. Schumm, C.W. Nichols, K.L. Schectman, C.C. Grigsby(1983a)

W.R. Schumm, E.D. Scanlon, C.L. Crow, D.M. Green and D.L. Buckler(1983b)

2) LWMAT 15문항, DAS 32문항, MSI 280문항, MSS 48문항, QMI 6문항, KMSS 3문항

개념으로 혼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수준의 質은 관계와 배우자에 대한 높은 정도의 만족, 잘 적응하는 관계의 특징인 동료감, 원만한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의 不在를 나타낸다(Lewis and Spanier 1980). 그런데 이러한 質 측정은 관계의 객관적 주관적인 면 양쪽-즉 한 쌍과 개인이 모두 分析單位가 됨-을 査定해야 될지도 모른다.

다른 전망은 質을 단일 차원적인 指數로 보는 관점으로, 質은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인 評價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cf. Fincham and Bradbury 1987; Norton 1983).

이러한 質의 개념화는 첫째 응답자가 전체로서 그들의 관계를 評價하게 한다. 어떤 행동(또는 행동의 집합체)에 대한 自己報告보다는, 결혼에 대한 총체적인 評價가 부부간의 부작용을 최종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점이다. 치료상의 부부는 행동을 報告할 때 일반부부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만족은 전반적인 만족에 대한 공통적인 측정에 의해 査定될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결혼의 質에 관련되는 변인(예: 의사소통, 자아노출, 동료감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즉 質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결혼의 특수한 내용 영역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부가 기능하는 측면에 대한 관계(예: 의사소통)를 조사할 때 검사 문항들이 중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혼의 많은 영역을 표집하는 다차원적 측정은 치료를 목적으로 결혼에 대한 광범위한 査定을 강조하는 임상 연구에 더 적절하며, 한편 결혼의 총체적이고 평가적 판단을 포함하는 단일 차원적 측정은 주관적으로 경험된 부부간의 고통에 관련되는 것을 결정하는데 더욱 적절할 것이다(Fincham and Bradbury 1987, 805).

이상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KMSS의 結婚 滿足 개념은 단일 차원적인 質 指數 개념과 같다.

2. 結婚 滿足度 尺度(KMSS)의 특성

Schumm과 그 동료들은(1983) 結婚 滿足에 대한 간결하고 직접적인 査定을 하기 위하여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개발하였다.

測定の 이론적인 근거는 Spanier와 Cole(1976)의 배우자, 결혼 그리고 남편(또는 아내)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간의 개념적인 특징에 기초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에서 尺度는 Cronbach's alpha .89~.93 범위의 신뢰도를 나타냈다(cf. Schumm et al. 1983a, 1983b; Shectman, Bergen, Schumm, and Bugaighis 1985; Mitchell, Newell, and Schumm 1983). 10週의 간격에 걸친 再調査 신뢰도는 .71이었다(Mitchell et al. 1983).

Schumm과 그 동료들은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QMI와 DAS, 그리고 특히 DAS의 만족도 하위척도와 KMSS의 상관관계(Schumm et al. 1986), Moos의 가족환경 척도 중 선택된 척도와 KMSS의 상관관계(Mitchell et al. 1983),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와 최근에 별거한 아내를 판별하는 능력(Schumm et al. 1985), 그리고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두개 측정과의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교회 참석($r = .22$) 및 수입($r = .16$)과 기대된 방향으로의 상관관계(Shectman et al. 1985)로 부터 이끌어 내었다.

Schumm과 동료들(1986)은 “척도가 많은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문항을 가진 結婚 滿足(質)의 하나의 차원을 査定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385).

그들이 척도를 만들때 일관된 관심을 가진 것은 偏布(skewness)와 尖度(kurtosis)의 점에서 정상으로부터 의의있게 벗어나는 척도의 응답 분포 경향이 있었다(Schumm et al. 1983a, b, 1985, 1986). 그외에

주3) ① In general, how supportive do you feel your husband is of you in your role as a mother? ($r = .50$)

② In general, how pleased are you with the way your spouse behaves as a parent? ($r = .46$)

주4) 집락 표집 단계는 3단계로서, 1989년도 부산시 교육통계연보를 목록표로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제 1단계: 부산시내 12개 區를 대상으로 하여 3개 區(동래구·부산진구·남구)를 無選擇集 하였다.

제 2단계: 3개 區에서 순서대로 국민학교(34개교)·중학교(17개교)·고등학교(14개교)를 택하여 각각 1개교씩 3개교를 無選擇集 하였다.

제 3단계: 3개교에서 전 학급을 대상으로 2개 학급씩 난수표를 이용하여 無選擇集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남편(N=193)	아내(N=193)
연 령		45.0세	40.9세
연령	32~34세	0	4
	35~39세	12	34
	40~44세	39	42
	45~49세	34	19
	50~57세	15	1
교육정도	국졸이하	3	10
	중졸	9	21
	고졸	41	47
	대졸이상	47	22
직 업	무직(또는 주부)	3	76
	임시고용·일일고용직	1	2
	서어비스직·숙련·반숙련공·단순노무직	13	5
	자영상인 및 자영서비스업자·기능직	34	10
	하위 전문기술직·정부의 하급공무원·일반회사 사무직	20	5
	고위 전문직·정부의 관리직 공무원·일반회사의 고급관리직	30	2
월 소 득	49만원 이하	18	18
	50~69만원 이하	29	29
	70~89만원 이하	26	26
	90~129만원 이하	26	11
	130만원 이상	16	16
자녀수		2.8명	2.8명
결혼년수		17.3년	17.3년
가족형태	부부가족	78	78
	직계가족	17	17
	기타	5	5

+숫자에 단위가 없는 것은 백분율임.

*무응답 사례가 있으므로 각 항의 백분율 합계가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응답자의 경향을 보고하였다(Schumm et al. 1983a, b, 1985, 1986).

尺度는 전체로서 관계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며, 이때 척도의 타당도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Sabatelli 1988, 901).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현재同居중인 夫婦를 대상으로, 단계적 집락 표집⁴⁾ 방법을 사용하였다.

3개 區(동래구·부산진구·남구)에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1개교씩 3개교의 학생 300명을 無選擇集 하였다. 질문지를 해당 학생의 부모가 직접 기입하여 각자 봉투에 봉해서 학생을 통하여 회수 하였다. 질문지는 총 600부(300쌍의 夫婦)를 배부하여 452부(75.3%)가 회수되었으나, 한 쌍이 아닌 자료(40부, 8.8%), 재혼인 경우(6부 1.3%), 불성실한 자료(20부 4.4%)를 제외한 386부(193쌍의 夫婦)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시간은 1989. 5. 29~6.3 까지 였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확대기의 부부만 선정되어 평균 연령은 남편 45.0세, 아내 40.9세 이었다. 한편 교육 정도는 고졸이상이 남편 88%, 아내 69%이고, 월소득은 70만원 이상이 53%이며, 남편의 직업은 하위 전문 기술직·정부의 하급 공무원·일반 회사 사무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50%였다. 전체적으로 중상층이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질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結婚 滿足度 尺度(KMSS)는 결혼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남편(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대단히 불만족에서 대단히 만족에 이르는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남편(아내)의 교육 수준, 남편(아내)의 직업, 월소득, 자녀수, 결혼연수, 가족형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結婚 滿足度 尺度의 妥當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結婚比較水準 指數⁵⁾(MCLI)와 結婚不安定性 指數⁶⁾(MII)를 조사하였다.

結婚比較水準 指數는 결혼생활이 期待에 비해 얼마나 조화로운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期待보다 대단히 못함”에서

“期待보다 대단히 좋음”에 이르는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知覺하는 것이다. 尺度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96/.94$ [남편/아내] 이었다.

結婚不安定性 指數는 解體에 이르러 最後의 結果를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결혼을 瓦解시키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긍정하면 1점, 부정하면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不安定性이 높다. 尺度의 신뢰도는 $\alpha=.80/.77$ [남편/아내] 이었다.

3. 자료분석

1) 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 분석을 하였다.

2) 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3) 척도의 신뢰도 분석으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4) 문항 평균을 분석하기 위하여 MANOVA와 t-test(paired-samples)를 하였다.

5) 응답의 정상 분포를 검증하기 위하여 Kolmogorov-Smirnov test를 하였다.

6) 척도의 構成概念 妥當度(construct valid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結婚 滿足度 尺度와 結婚比較水準 指數 및 結婚不安定性 指數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문항분석

結婚 滿足度 尺度의 문항 변별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을 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세 문항이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변별력이 .88~.96/.83~.94 [남편/아내]로서 아주 높은 경향이다.

문항 내용의 변별도는 표 2와 같다.

주5) Sabatelli(1984)의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MCLI)를 사용하였음.

6) Booth, Johnson과 Edwards(1983)의 Marital Instability Index(MII) 단축형을 사용하였음.

표 2. KMSS의 문항 내용과 변별도

문항내용	변별도	
	남편	아내
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95*	.92*
2. 배우자로서 아내[남편]에 대한 만족	.96*	.94*
3. 아내[남편]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88*	.83*

*P<.0001

표 3. 結婚 滿足度 尺度의 요인 행렬표

1) 남편의 경우

문항내용	요인1	Communality
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88	.78
2.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한 만족	.76	.92
3.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88	.78
eigenvalue	2.48	

2) 아내의 경우

문항내용	요인1	Communality
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80	.64
2.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한 만족	.92	.85
3.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83	.69
eigenvalue	2.19	

2. 요인분석

結婚 滿足度 尺度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KMSS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기초로 주성분 분석 방법과 직각 회전을 적용하였다. 요인 행렬표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結婚 滿足度 尺度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부하량이 .76~.88/.80~.92[남편/아내]이었다.

3. 신뢰도

結婚 滿足度 尺度의 내적 일관성 신뢰는 $\alpha = .93 / .89$ [남편/아내]로서, Carmines와 Zeller가 제시한 기준인 .80을 훨씬 넘는 것으로 신뢰할만한 척도였다.

4. 문항평균

성과 月所得 수준을 통제하여 세 문항의 평균 점수의 차이⁷를 평가하기 위하여 MANOVA⁸를 하였다. 각 因子에 관련된 unique variance⁹만 고려하여 볼 때, 문항들 사이에서만 유의있는 효과가 있었다($\lambda = .96$, multivariate $F = 3.90$, $P < .02$).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배우자로서 아내 [남편]에 대한 만족, 그리고 아내 [남편]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이루어진 세 문항의 평균은 남편의 경우 $M = 5.02$ ($SD = 1.41$), 5.06 ($SD = 1.53$), 5.13 ($SD = 1.40$)이었고, 아내의 경우 $M = 4.62$ ($SD = 1.33$), 4.75 ($SD = 1.41$), 4.77 ($SD = 1.31$)이었다.

문항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samples t-test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편의 경우 세 문항의 평균사이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아내의 경우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_{191} = -2.08$, $p < .05$). 즉 결혼생활에 대해서 보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주7) To assess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item means a full factorial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ith between-subjects factors of sex and income was performed using the SPSS^x MANOVA routine.

8) (1) 월소득 수준은 49만원이하=1, 50~89만원=2, 90만원이상=3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2) MANOVA program은 다음과 같다.

```
MANOVA H1, H2, H3, W1, W2, W3 BY INCOME(1, 3)/
WSFACTORS=SEX(2), ITEM(1, 3)/
WSDESIGN=SEX, ITEM, SEX BY ITEM/
METHOD=SSTYPE(UNIQUE)/
PRINT=SIGNIF(BRIEF), CELLINFO(MEANS), HOMOGENEITY(BARTLETT, BOXM)/
ANALYSIS(REPEATED)/
DESIGN=INCOME/
```

9) The statement used to obtain tests for unique variance associated with each factor is METHOD-SSTYPE (UNIQUE). The only significant factor for the hierarchical design was item, as well.

표 4. 결혼만족도 척도 세 문항간의 차이

1) 남편의 경우						
	N	M	SD	T-value	DF	2-Tail prob.
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193	5.02	1.53	-.75	192	.46
2.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한 만족		5.07	1.52			
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192	5.02	1.53	-1.51	191	.13
2.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5.13	1.40			
2.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한 만족	192	5.06	1.53	-1.05	191	.29
3.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5.13	1.40			
2) 아내의 경우						
	N	M	SD	T-value	DF	2-Tail prob.
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191	4.62	1.33	-1.83	190	.07
2.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한 만족		4.75	1.41			
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192	4.62	1.33	-2.08	191	.04
2.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4.78	1.31			
2.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한 만족	191	4.75	1.41	-.39	190	.70
3.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4.77	1.31			

있었다. 세 문항의 상호상관은 .77~.85/.67~.77 [남편/아내]로서 높은 경향이었다.

한편 아내를 대상으로한 Schumm과 동료들의 연구(1983, a)에서는 결혼에 대한 만족과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은 결혼에 대한 만족(M=5.95, $t_{83}=2.04$)과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한 만족(M=6.00, $T_{83}=2.96$)보다 유의하게($p<.05$) 낮았다¹⁰⁾. 또한 부부를 대상으로한 Schumm과 동료들의 연구(1983, b)에서는 남편의 경우 세 문항간에 차이가 없으나, 아내의 경우 결혼에 대한 만족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지만, 위의 두 문항과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한 만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_{77}=2.90, p=.005$ & $t_{76}=2.97, p=.004$).

본 연구의 결과와 Schumm과 동료들의 결과(1983 a, b)에서 일치하는것은 남편의 경우 세 문항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과 아내의 경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의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chumm과 동료

들의 두 연구에서도 그 결과 패턴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추출하여야 하겠다.

또한 結婚 滿足度 尺度가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 같은 질문을 세 번 묻기 때문이라는 비평이 있다. 이에 대해 Schumm과 동료들은 세 문항 중 두 문항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아내의 경우]는 것을 증거로 하여 반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아내의 경우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약간의 증거가 나타났다. KMSS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필요하다면 결혼만족의 특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5. 응답 분포

結婚 滿足度는 부부의 경우 모두 3~21점의 범위에 있으며, 남편은 M=15.16(SD=4.18), 아내는 M=14.15(SD=3.66) 이었다¹¹⁾.

남편과 아내의 偏布 값은 -.68, -.70이며, 尖度는 .80, .55였다.

주10) Schumm과 동료들의 乳兒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한 연구(1985, 538 : 1986, 383)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5. 세 척도의 특성

	Mean	SD	T-value	DF	Sig.	Range	Skewness	Kurtosis
結婚滿足度 尺度 [남편]	15.16	4.18	3.41	189	.001	3-21	-.68	.08
結婚滿足度 尺度 [아내]	14.15	3.67					-.70	.55
結婚比較水準指數 [남편]	133.07	30.31	2.73	120	.007	52-214	.13	.48
結婚比較水準指數 [아내]	126.28	28.73					.12	.63
結婚不安定性指數 [남편]	.73	1.31	-2.65	183	.009	0-5	1.97	3.01
結婚不安定性指數 [아내]	.98	1.40					1.39	.93

표 6. 結婚滿足度 尺度와 結婚比較水準指數 및 結婚不安定性指數간의 相關係數

	KMSS	MCLI	MII
남편(N=130)			
結婚滿足度 尺度	—	.69*	-.50*
結婚比較水準 指數		—	-.42*
結婚不安定性 指數			—
아내(N=113)			
結婚滿足度 尺度	—	.66*	-.48*
結婚比較水準 指數		—	-.44*
結婚不安定性 指數			—

응답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Kolmogorov-Smirnov test(適合度 檢證)를 하였는데, 남편은 $z=1.68$ ($p<.007$) 아내는 $z=2.62$ ($p<.0001$)로서 정상 분포로부터 의의있게 벗어나 있었다.

Schumm과 동료들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도 척도의 偏布와 尖度 값이 정상 분포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으로 응답(social desirability response tendencies)하는 정도가 낮은 피험자들의 경우 偏布와 尖度 값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結婚 適應/滿足/質 측정의 많은 다른 측정과 마찬가지로 KMSS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사람들이 사회조사에 참여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며, 이러한 응답 偏倚(bias)가 측정 과정에 오

류를 도입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모든 측정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결혼관계의 査定에서 응답 偏倚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가는 분명하지 않다. 사회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정도도 詳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측정의 타당도가 응답 偏倚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정도를 査定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타당도는 정도의 차이에 있어 존재하므로(Mclver and Carmines 1981) 다른 증거가 측정의 타당도를 지지할 때 가능하게 된다. 즉 타당도의 정도가 항상 응답 偏倚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은 상대적으로 타당한 構成概念의 측정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타당도의 증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경향에 의해 특수한 방법으로 오염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측정이 설계된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하겠다(Sabatelli 1988, 895-896).

6. 타당도

構成概念. 妥當度を 측정하기 위하여 結婚 滿足度 尺度(KMSS)와 結婚比較水準 指數(MCLI) 및 結婚不安定性 指數(MII)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세 척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세 척도는 모두 남편과 아내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9\sim.001$). 즉 남편에 비해 아내가 結婚 滿足이 낮고 夫婦간의 不平이 더 많으며 그리고 不安定性이 더 높다. 이것은 父系 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은 적응을

주11) 두 집단의 평균차는 $t_{189}=3.41$, $p<.001$ 이었다.

해야하는 가족구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 척도들 사이의 相關關係는 표 6과 같다.

結婚 滿足度 尺度는 結婚比較水準 指數와 $r=.69/.66$ [남편/아내]의 正的 相關이 있으며, 結婚不安定性 指數와 $r=-.50/-.48$ [남편/아내]의 負的 相關이 있었다. 이로써 結婚 滿足度 尺度의 理論的 適合性을 나타내는 概念構成 該當度가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KMSS 척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가정생활주기상 확대기의 부부 193쌍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結婚 滿足度 尺度의 문항 변별도가 높으며,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도 아주 좋으나 이것이 단지 비슷한 문항의 합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문항간 평균의 차이는 아내의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서만 유의하였다.

한편 다른 만족 측정들과 마찬가지로 偏布와 尖度에 대한 문제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社會調查를 하는 모든 측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다른 妥當度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結婚 滿足度 尺度의 構成概念 妥當度는 지지되었으며,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KMSS가 결혼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結婚 滿足度 尺度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임상적 평가나 조사 연구에서 간결하면서 신뢰할만한 측정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확대기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신혼기 부부와 딸부모기 부부가 제외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하겠다. 둘째 Social desirability를 줄이기 위해 문항의 표현을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타당도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신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KMSS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이와 함께 표준화된 結婚 滿足度 尺度 개발을 위한 활발한 연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1) Booth A, Johnson DR, and Edwards JN :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387-393, 1983
- 2) Carmines EG and Zeller RA :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Beverly Hills, CA : Sage, 1979*
- 3) Filsinger EE(ed.) :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 A sourcebook of family therapy. Beverly Hills, CA : Sage, 1983*
- 4) Fincham FD and TN Bradbury :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 797-810, 1987
- 5) Locke HJ : *Predicting adjustment in marriage : A comparison of a divorced and happily married group. New York : Holt, 1951*
- 6) Locke HJ and Wallace KL : *Short marital-adjustment and prediction tests :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1 : 251-255, 1959
- 7) Mclver JP and Carmines EG : *Unidimensional scaling. Beverly Hills, CA : Sage, 1981*
- 8) Mitchell SE, Newell GK, and Schumm WR :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 545-546, 1983
- 9) Norton R : *Measuring marital quality :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141-151, 1983
- 10) Roach AJ, Frazier LP, and Bowden SR :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537-546, 1981

- 11) Sabatelli RM :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 A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s relative to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651-662, 1984
- 12) Sabatelli RM : *Measurement issues in marital research : A review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survey instru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 891-915, 1988
- 13) Schumm WR, Anderson SA, Benigas JE, McCutchen MB, Griffin CB, Morris JE, and Race GS :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6 : 719-722, 1985
- 14) Schumm WR, Nichols CW, Schectman KL, and Grigsby CC :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 567-572, 1983a
- 15) Schumm WR, Paff-Bergen LA, Hatch RC, Obiorah FC, Copeland JM, Meens LD, and Bugaighis MA :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 381-387, 1986
- 16) Schumm WR, Scanlon ED, Crow CL, Green DM, and Buckler :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in a sample of 79 marr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53 : 583-588, 1983b
- 17) Sheckman KL, Bergen MB, Schumm WR, and Bugaighis MA :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among female participants in community child birth classes. Psychological Reports* 56 : 537-538, 1985
- 18) Snyder DK :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813-823, 1979
- 19) Spanier GB :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15-28, 1976
- 20) Spanier GB, Cole CL : *Toward cla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arit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6 : 121-146, 1976
- 21) Spanier GB and Lewis RA : *Marital quality :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825-839, 1980
- 22) Thompson L and Walker AJ : *The dyad as the unit of analysis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 889-900, 1982